CONTENTS

2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71
맑은 서화천을 만드는 사람들 2 - '환경리더 김미자, 박정호'

8 대청호 마을 스토리텔링 17
충북 보은군 회인면 고석리 유제길 이장님을 찾아

12 대청호 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4
카메라에 담긴 대청호오백리길

18 정책&이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강 보 처리 방안 의견문
심의의결에 대한 소회

24 기고글

27 사업보고 -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유역하천센터,
미래세대 물환경 교육사업, 서화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

36 대청호 뉴스&뉴스

38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0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vol.126

발행일 2020. 11. 30
발행인 최병욱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건희
사무처 이건희, 임정미, 김재곤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이강혁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청댐물문화관 2층
전 화 042) 930-7340~1
전 송 042) 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월간토마토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동로 574 2층
042) 320-7151

대청호에서 발견된 거위들. 누군가 기르던 거위들을 방사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대청호 야생에 적응하여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대청호가 이렇듯 좋은 경치와 풍경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곳곳에서 낚시객 등의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여 많은 걱정거리를 던져주곤 한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곳들이 점점 사라지길 바라며…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맑은 서화천을 만드는 사람들 2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환경리더 김미자, 박정호’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이하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운영하여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였다. 2018년 말에는 행정명으로 소옥천이라 명칭 되었던 것이 지역 고유의 명칭인 서화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청호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청호 직유입 하천 중 하나로 서화천이 꼽혔고, 서화천 유역에서 다양한 수질개선 활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물론 대청호 녹조 현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녹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비점오염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분석, 주민이해 및 참여,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좀 더 체계화된 수질개선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며 마을단위 환경개선 실천운동을 안착화 하는 내용으로 서화천 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가 출범하게 되었고 3년째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에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4명의 환경리더가 있다. 환경리더들은 지금까지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 함께 교류, 소통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마을의 특색에 맞게 수질오염원을 저감하고 도랑과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민들의 실천활동을 함께 만들어왔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8명의 서화천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지원하기도 하였다.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의 ‘환경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자, 박정호 리더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전일, 박영미 리더는 2019년 11, 12월호 소식지에 소개된 바 있다. 지난 11월 초, 옥천읍의 작은 카페에서 김미자, 박정호 리더와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정호 : 고향은 포항이고 대전에 살다가 옥천 안남면으로 이사 온 지 올해로 6년째다. 안남으로 오게 된 계기는 아직 막내딸이 어린데 안남에 배바우 작은도서관이 있다 보니 도서관에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고 자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다. 안남으로 이사를 오고 배바우 작은도서관과 연계가 되어서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2019년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다. 올해는 쉬면서 몸을 돌보려고 했는데 첫째 딸부터 셋째 딸까지 셋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 여러 곳 봤다. 그런데 막내딸이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안남면으로 가야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소개를 받고 면접을 보고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에서 환경리더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미자 : 나는 옥천에 온지 7년 밖에 안 되었다. 옥천이 고향이지만 타지에서 살다가 결혼하면서 다시 옥천으로 오게 되었다. 전에는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 때의 인연으로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환경리더를 소개해 주었다. 환경에 관심은 있었지만 환경문제에 문외한이나 다름없었기에 환경리더의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면접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심이 가게 되었고 환경리더로 활동하게 되었다.

올해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김미자 : 사람들이 하천주변에 소각도 많이 하고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그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나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사람들에게 자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 환경운동가처럼.(웃음)

또한 모니터링단 분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연세가 많고 농사일 등으로 바쁜데도 모니터링단 활동을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해주고 계신다. 맡은 지점을 열심히 현장조사를 하고 불법 소각, 쓰레기 투기가 있는 곳이면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이 분들도 환경일꾼이 다 되신 것 같다.

박정호 : 나는 환경운동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보존하는 활동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해왔다. 환경과 관련된 활동은 일상인 것이지 어떤 운동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활동을 하다 보니 농촌이 특히 분리수거 문제, 소각문제가 엄청나게 심하더라. 나 또한 시골에서 살다 보니 휴지 같은 것은 그냥 집에서 태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태우지 말라는 얘기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리더로 일을 하면서 더 크게 문제점을 자각하게 되었고 집에 소각통을 없앴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침 큰 딸이 학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공부하고 집에 오면 분리수거, 플라스틱 줄이기 등 실천사항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는 걸어 다니는 환경리더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버렸다고 하고 일회용 안 쓰려고 노력중이라고 눈치 보듯 얘기하고 있다.(웃음)

올해 특히 기후변화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박정호 : 생활에서 사람들이 환경실천을 일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적게 쓰기 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실천해야 한다. 나 또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비가 너무 와서 대청호변 경작지가 다 잠기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제는 기후가 이러니 환경을 좀 생각하자는 차원으로는 안 되고 이를 넘어서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고민되는 점은 예전에는 마을주민들과 정화활동 후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개별로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시락이 모두 일회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증가하게 되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다.

김미자 : 나는 잘 분해되지 않는 스티로폼, 플라스틱을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플라스틱 빨대를 해조류 등으로 잘 분해되는 빨대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처럼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박정호 리더의 집처럼 우리 집에서도 소각통을 없앴다. 지구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비닐류를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기오염에 플라스틱류 등을 소각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진공청소기 등의 전자제품도 며칠 동안 태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공기 좋은 시골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정말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두 번 교육으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

환경리더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김미자 : 4명의 환경리더는 8명의 하천모니터링단을 2명씩 맡아서 함께 활동하고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쓰레기 소각 등 오염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가서 계도활동도 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실천활동도 하고 있다.

나는 추부면 담당이다. 추부면의 경우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소각현장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용지리 마을회관 앞 도랑변에 소각통이 있었는데 모니터링단과 함께 주민계도를 하면서 없앴고, 요광리 추풍천변에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던 소각행위도 민관공동작업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자부리 농협집하장 내에 있었던 소각행위도 원상복구되었다. 추부면의 경우 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감대를 갖고 많은 성과를 내었다.

박정호 : 옥천읍 금구천을 담당하고 있다. 문정리, 장야리, 서대리, 마암리, 대천리 등의 마을과 사업을 하고 있다. 대천리에서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옥천군과 같이 합동하여 해결을 한 바 있다. 모니터링단 분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확인하면 리더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옥천군에 요청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을 얘기해 주세요.

박정호 : 옥천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쓰레기 불법 소각이 심각한 곳이 있어서 작년부터 활동을 해왔던 곳인데 올해도 여전히 소각행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홍보현수막 등을 걸면 그 다음날 바로 떼어지고 하는 일도 반복이 되었다. 담당 모니터링단도 이곳이 해결이 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사무실로 연락을 했는데 누군가 우리가 걸었던 현수막을 논에 던져 놔서 자기의 트랙터가 현수막에 걸려 망가졌다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사유지에는 홍보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긴장하면서 총알같이 현장으로 가보았다. 논 한가운데 현수막을 걸 수는 없었다. 인근 소각이 심한 지점에 누군가 자신의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그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떼어서 논에다가 던져놓은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동네사람이 소각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소각을 심하게 하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소각행위가 심각한

지점 부근의 경작지 주인이 아무래도 소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경작지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전화를 걸었던 그 어르신의 논이었다. 또한 그 논 한 구석에서 이전에 걸었던 현수막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 일부가 그곳에서 소각을 자주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상황에서 소각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니 갑자기 어르신의 태도가 바뀌었다. 농기계가 고장 났으니 물어내라고 하려다, 우리가 불법 소각은 과태로 100만 원 이하 이고 그 소각한 사람 때문에 어르신의 농기계가 고장 났으니 찾아야겠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그냥 알아서 할 테니 가보라는 것이었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천변 소각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와서 태우니 문제가 심각하다.

김미자 :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추풍천변의 심각한 쓰레기 소각현장을 민관 합동으로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홍보를 한 사례가 있다. 비닐하우스 경작지가 많은 곳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추풍천 밑에 어마어마한 량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추부면 면장님을 비롯한 면사무소 직원들과 추부면 새마을협의회, 추부면 주민자치회 회장 및 회원들이 우리의 활동에 적극 공감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소각현장을 원상복구하고 소각 근절 홍보현수막을 부착하여 잘 해결한 바가 있다. 추부면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였고 너무 보람이 있었고 좋았다.

이처럼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군이나 면 등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모두가 힘이 나고 큰 성과가 난다.

박정호 : 위에 말씀드린 옥천의 경우도 옥천군과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작년에도 포크레인까지 동원하여 소각현장을 원상복구하고 올해도 어마어마한 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는데 그렇게 치워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김미자 : 거버넌스라는 것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이름에 맞게 민과 관이 힘을 합쳐야 큰 성과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군과 면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면 힘이 나고 훨씬 보람된 성과가 난다.

금산군 추부면 추풍천 인근의 한 공장 앞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쓰레기들이 추풍천으로 유입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있다 금산군 환경과에서 나온 분들이 현장에 와서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였다. 알고 보니 금산군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하천에 투기되고 소각되는 쓰레기만 수거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군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박정호 :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마을은 아니지만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의 경우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마을이고, 군북면 막지리의 경우도 주민 인구가 매우 적은 마을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환경실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이 너무 깨끗하다.

주민들은 우리들과 친환경 제품 함께 만들고 직접 사용해보고 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성과인 것 같다.

환경리더로서 우리 주변에서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셨나요?

박정호 : 우선 환경리더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어려운 이론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분리수거,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친환경제품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단체에서 친환경제품을 살 수 있는 매장 같은 것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비닐 포장도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포장 없이 주민들이 용기를 직접 들고 와서 천연세제 등을 담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쓰레기도 줄고 좋을 것 같다.

김미자 : 옥천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잘 협의하여 매장 한 곳에 천연제품을 판매하고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장에서 장 보면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친환경세제도 사용해보면 주민들이 친환경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화천 유역 거버넌스에서 마을주민들에게 환경교육하고 친환경제품 만들기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경우 거버넌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물어보기도 한다. 만약 매장이 있다면 주민들이 친환경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서화천 유역 곳곳에서 매우 뜻 깊고 성과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는 환경리더 분들의 활동 덕분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성과가 더 만들어지고 확산되길 바란다.

글 박병춘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우리 마을이 더 잘 살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게요.”

충북 보은군 회인면 고석리 유제길 이장님을 찾아

‘대전에서 보은까지 고속도로로 갈까, 국도로 갈까?’ 네비게이션은 고속도로로 안내했지만, 나는 국도를 택했다. 바쁘게 살아왔으니 좀 천천히 가고 싶었다. 그 ‘천천히’ 속에 늦가을 풍광도 담아 보기로 했다. 대전을 빠져 옥천에 다다랐고, 옥천에서 보은 가는 길은 이전보다 새롭게 단장되어 넉넉함과 여유를 안겨주었다. 먼 산 색깔은 낮게 깔린 산안개와 어울려 신비감을 자아냈다. 자동차가 날 수 있다면 산안개 복판으로 들어가 긴 잠을 청했으리라. 대청호가 산 그림자를 안고 살갑게 미소지었다. 1시간 20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동네 입구 고석교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이장님 댁이 있었다. 지금까지 뵈었던 이장님 중에 가장 연세가 높으신 분이었다. 유제길(72) 이장님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지요. 객지 생활은 2년 정도 했어요. 서울에서 일 잘한다고 PVC 공장 공장장까지 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어요. 일을 하던 청년 직원 한 사람이 기계에 손이 다쳐 큰 사고가 났었어요. 나는 직장 상사로서 괴로워하다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유 이장은 고향 마을에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일에 매달려야 했다. 농사를 짓다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다. 목수 일을 하다가, 대전 비래동 아파트에서 도면 봐가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대장 노릇도 했다. 1980년도에는 엄청난 수해로 마을 사람이 25명이나 사망했다. 그래서 마을 토목 공사에 참여했고, 마을 저수지 제방 공사도 주도했다. 회동 초등학교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20년 동안 일을 했고, 폐교가 되면서 회인 중학교에서 학교 일을 총관리하기도 했다. 만 57세 되던 해에 28년 공무원 생활을 접고 마을 농사에 전념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모두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궈낸 삶의 여정들이었다.

고석리에는 50가구 80명 정도가 산다. 감, 곶감, 대추, 인삼, 사과, 고추, 마늘, 벼농사 등 다양한 농작물로 수확을 낸다. 유 이장은 이 마을 이장으로 9년째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회인면 이장협의회장을 2년 째 역임하고 있으니 고석리 마을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남 3녀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마을 이장으로서 고석리를 지키고 있는데, 마을의 우여곡절을 사실적으로 들려 주셨다.

마을 이장으로서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이장을 맡기 전에는 마을 도로나 다리가 제대로 없었다. 마을에 차도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유 이장은 가장 먼저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 교량 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부터가 마을 발전의 시작이었다. 군비나 도비를 모아 농로를 내고 포장을 하고 수많은 다리를 놓았다. 마을 창고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을에 큰 창고도 지었다. 농산

물 판매장으로 쓸 계획이었지만 판매 물량이 적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농기계 보관 창고로 전용하여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중이다.

유제길 이장은 고석리 마을 자랑을 빼놓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자랑했다. 3년 전부터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협력하여 도랑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는 모습으로 도랑이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물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이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변모시켰다는 게 유 이장의 평가다. 연세가 지긋한 마을 어르신들도 마을 살리기 사업 후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유 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마을 도랑이 엄청나게 깨끗해졌다. 옛날에는 냇물에 사는 물고기 중에 기형도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맑아져서 그런 물고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고석리가 마을로서 제자리 찾기 전에는 정비되지 않은 개천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다. 1960년대만 해도 농사지을 논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유 이장의 6촌 형님인 유제만 씨가 마을 개간 사업에 뛰어들어 하천을 만들고 농사지을 땅을 마련했다. 볏단이 생겨 초가 지붕도 이고 마을로서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주변에 돌광산이 있었는데, 돌기와나 돌구들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한 재료로 지은 집을 '너덜집'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마을 집집마다 돌기와로 지붕을 만들어서 집 걱정도 없게 됐다.

하지만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1980년도에 감당할 수 없는 수해가 나면서 동네 사람 25명 사망이 사망한 것이다. 수마는 마을 전체를 뒤엎었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가정이 파괴된 경우도 많았다. 그때만 해도 고석리에는 100호가 훨씬 넘는 집이 있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사망하여 마을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조금이나마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 8가구를 새롭게 지어 주었다. 그래서 이곳을 '새동네'라고 부른다.

요즘은 외부 사람들이 고석리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고석리에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촌을 결심하기도 한다. 현재 10가구가 새롭게 들어올 예정인데, 일부 공간에 집터를 닦고 있다. 고석리 마을 주민들 중 그 누구도 외부인들의 유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절대로 싫은 소리도 하지 않는다. '다른 동네 현찰보다 우리 동네 외상 먹는 게 더 낫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고석리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살았다며 유 이장은 강조했다.

유 이장에게 소망을 물었다. 아무리 시골 마을이라도 우선 소득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게 유 이장의 바람이다. 마을에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해서 단체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대로 직거래 판매를 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유 이장은 회인면 이장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판매 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튜브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다. 고석리 마을이 더 잘 살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에게 딸린 혈육이 17명이랍니다. 주말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요. 손자 손녀들까지 다 모이고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좋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유 이장의 막내 따님이 짧게나마 인터뷰에 응했다. 유

마을 공동 김장

향미(37) 씨는 현재 유아 교육 관련 음악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고석리 마을에 음식 체험장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추장, 된장, 메주, 청국장 엑기스 등 토속 음식을 만들어 체험장도 운영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음악 교사를 중단하고 마을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함께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며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터뷰 끝자락에 유 이장은 대청보호전운동본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협력해서 우리 마을과 도랑이 깨끗해졌어요. 도랑을 정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었어요. 마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분리 수거도 잘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솔선수범해서 우리 마을이 아주 깨끗해졌답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요."

글 김종헌 6기 대청호해설사

카메라에 담긴 대청호오백리길

거대한 물그릇, 아름다운 대청호의 가치

*** 대청호오백리길,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대청호해설사의 시각으로 대청호오백리길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 숨겨진 대청호의 비경, 오백리길 현재 현황을 소개하면서 카메라에 담긴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청댐은 사회적 합의도 모른채 1975년 첫삽을 뜨고 1980년 완공되어 현재 마흔살이 되었습니다.

다목적댐인만큼 본댐에 보조댐까지 건설되었는데, 최근 비상여수로까지 만들어지고 캠핑장이 들어서기도 하여 아이러니한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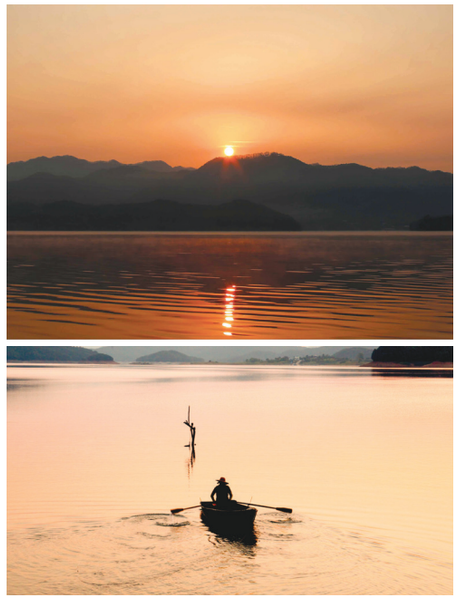
캠핑문화가 대세인 요즘, 캠핑족의 방문은 끊임없습니다. 여가를 건강하게 즐기는 캠핑, 언젠가 우리 가족들, 대청호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모닥불 피우고 고구마 구워먹는 소소한 행복을 상상해봅니다. 다만, 아름다운 캠핑 전후의 처리까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캠핑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 내부적으로 하수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고, 땅위 사람들의 건강한 문화는 보장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낚시문화와 비교해봐도 아직은 아름답기만 한 레저는 아닌게 확실해집니다. 일부 낚시객이 지나간 후의 자리는 어김없이 소각재로 뒤덮혀 있습니다. 그날 잡은 물고기만 가져가고 그날 배출한 나의 모든 쓰레기는 두고 가거나 태우고 가니 말입니다.

공중화장실 문앞에 새겨진 문구가 씁쓸히 생각납니다. '당신의 머문 자리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2



어느 상쾌한 새벽녘, 4구간(대전시 동구 주산동 287) 소재 황새바위 전망대를 찾았더니 대청호반을 붉게 물들이며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운좋게 만났습니다. 붉은 비단물결속에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젓는 어부의 모습이 한가롭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우리의 노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간이 되었고, 이어 명상공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이 사람들에게 저마다 스토리를 만들어줍니다.

#3

대청호에 가면 명상정원이 있습니다. 오백리길 4구간 풍경소리길(대전시 동구 추동 680) 슬픈연가 촬영지 주변을 시민명상공원으로 조성한 곳. 대청호의 수려한 풍광을 명상하듯 즐길 수 있도록 항아리, 한옥담장길, 나무쉼터 등을 설계한 구간이 멋드러짐 그 자체입니다. 공원 주변은 슬픈연가와 더불어 트루픽션, 7년의밤, 창궐 등 여러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한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 내방객들도 많습니다. 명상공원 명칭때문인지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으로, 내방객들의 에티켓이 돋보입니다. 최근 마스크가 쓰레기가 되어 나뒹구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나 곧바로 공공근로팀의 수거활동 등 주변이 깨끗해지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행정에서도 관광명소는 특히 신경써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좀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좀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4

4구간 미륵원 관동묘려 들어가는 길목에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집들이 여러채 있습니다. 대청호 가장 가까이에 제법 큰 규모의 식당가가 들어서는 것에 환경공부하는 대청호해설사들은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아주 잘 되어있겠지' '행정담당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테지' 의견을 나누면서 믿음을 갖고, 매의 눈과 따뜻한 가슴을 잊지 않으며 주변을 걷습니다. 마산동 일대의 대청호는 그곳 자체가 수채화입니다. 눈이 오면 그곳 자체가 수묵화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자체로 가을남자 가을여자를 만들어줍니다.

이토록 풍경이 수려한 곳에 야생거위가 여러마리가 서식하더니 곳곳을 오고가는 트레킹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꼬물꼬물 앙증맞은 새끼 6마리가 부화하여 어미를 졸졸 뒤따르는 풍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오리가족과 거위가족들이 함께 노닐때 더 행복해보인 것은 비단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카메라에 듬뿍 담겨지니 더불어 행복하더이다.

#5

김옥균과 명월이의 사랑이야기가 숨겨진 곳, 청풍정입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진걸마을 진입구간에 위치한 청풍정은 1790년경 참봉 김정경이 지은 정자로 1993년 옥천군에서 복원하였습니다.

조선말기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이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청풍정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곳으로, 물이 굽이쳐 흐르는 절벽 위에 정자 하나, 청풍정에는 김옥균과 기생 명월이의 사랑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중략하고, 기생 명월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전 짧은 글을 남겼는데 '김옥균과 함께 소일하고 있던 세월이 일생에 영화를 누린 것 같이 행복했지만, 선생이 품은 큰 뜻에 누를 끼칠까봐 몹시 송구스럽

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랍니다. 비통해하던 김옥균이 청풍정 아래 바위 절벽에 '명월암'이라는 글자 하나 크게 새겼다는 옛날옛적이야기~. 대청호 곳곳에는 가족이야기, 사랑이야기, 전쟁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대청호해설사들의 긴 여정이 어느날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책자 모음집을 엮을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6

청풍정 명월암에 기생하는 좀바위솔(애기바위솔). '작은 바위솔' 또는 애기 바위솔이라 불립니다.

바위솔은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반면 좀바위솔은 바람이 잘 통하며 온도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9~10월에 홍자색 꽃이 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촘촘히 달려 피는데 작은 꽃줄기는 약 0.3㎝, 꽃받침 조각은 5개, 꽃잎은 5개로 긴 타원형이고, 수술은 10개로 꽃잎과 길이가 같습니다. 10~11월경에 긴 타원형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해설사들이 귀한 시간, 귀한 생명을 귀하게 구경하는 행운을 함께 얻었습니다.

#7

옥천군 석탄리마을은 금강변이 넓게 마을을 감싸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얼마전까지 한겨울에 빙어축제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을만큼 귀농귀촌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마을끝자락 어디쯤에 물위에서 레저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조용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청호가 450만여명의 식수이다 보니, 녹조와 쓰레기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인 상황에서 식수에서 물놀이가 합법화하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평의 물놀이와는 다른 가치를 가졌기 때문일겁니다.

마을길따라 금강트레킹을 하던 중 곳곳에 가시박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싶지 않은데 무작정 가시박은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많아도 무진장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시박과 같은 외래식물종이 우리 토종의 생태계를 마구 잡아먹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마냥 주민들더러 6~7월중 없애달라면 그것이 해결책일까요? 전반적인 전수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없앨 것은 없애고 잘 관리해서 우리 생물종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금강~대청호변, 마을도랑변까지 침투한 가시박과 같은 외래식물, 함께 조사하러 갑시다. 조사된 곳도 있던데 그런 곳부터 서둘러 관리되기를 희망합니다.

#8

옥천군 석호리 석결마을은 금강상류에서 대청댐까지 온갖 쓰레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산과 산을 이어 물속에 3m가량의 그물망(차단펜스)이 설치된 마을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장마철부터 11월까지 온갖 대량 쓰레기가 차단펜스주변에 모여들고, 대형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섬을 만들어 집하장으로 걷어올리면 주민들이 팔을 걷어부쳐가며 분리수거작업을 통해 쓰레기분리수거장의 모습을 갖춥니다.

올해에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쓰레기수거량이 기존의 4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부분 초목류인데 이는 톱밥 및 퇴비원료로 활용되고,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만 21억원 들어갔다고 하니, 우리의 삶에 쓰레기는 되도록 적게 배출하는 것이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고민해봅니다.

글 유진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강 보 처리 방안 의견문 심의의결에 대한 소회

(좌)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공주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
(우)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2020년 모습.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발표에 따라 4대강 16개 보 전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을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금빛 비단강 금강의 자연스러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잊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금강의 최대 문제점인 3개 보 처리가 가닥을 잡았다. 올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당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특히 정책분과회의 중심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제출문 초안이 작성되면, 전체 위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의견 제출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보 현장방문(2019.12.23),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평가결과 및 모니터링 설명회 참석(2회 : 2020.5.11., 5.18), 관계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부여군)의 의견 청취(2020.6.1.), 금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2020.6.29), 금강유역위 전체위원 서면의견 취합('20.8.19~9.19) 및 현안회의('20. 9. 17), 4대강 조사·평가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금강 수계 보 처리방안 제시안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모두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방안대로 의결되었다. 3개 보 공사가 시작된 지 무려 12년 만에 금강은 제대로 숨통이 트였다.

무려 1,346쪽 분량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 관련 자료를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두 세 번씩 살펴보았던 위원들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과 논란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었다. 지난 8개월여 동안 논의 과정을 통해, 세종보는 '해체' 의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모니터링 결과 보 개방에 따른 물리적인 서식환경의 변화로 생태계 회복, 수질 개선 등 환경적 가치가 입증되고 있으므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 해체를 제안하였다. 덧붙여서, 보 구간 친수 공간 및 경관의 저해에 따른 우려를 일부 표명하고 있으나, 보 해체 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견과 선호가 다양하여 객관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보 해체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양화취수장, 계류장, 금강보행교 수위 등의 영향과 관련된 개선대책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주보는 '부분해체' 의견으로 모니터링 결과 보 상류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보 해체에 따른 안전도 검사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보 구간에 해당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도교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 부분해체를 제안하였다.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주장되었던 2018년, 2019년과 2020년에 이르기까지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사를 경작하지 못한 사례가 없으나 지하수위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관정개발 등 임시대책을 추진한 상태로 항구적인 물 이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 구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분해체 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도 당부하였다.

백제보는 '상시개방'으로 장기간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B/C, 안전성, 수질, 생태, 이수, 치수, 지역 인식 등의 객관성이 인정되며, 지역 주민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

단되기에 4대강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바와 같이 백제보 상시개방을 제안하였다. 보의 상시 개방 시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물이용 관련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백제보 하류의 영향과 녹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도 잊지 않았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9월 25일 회의장에서 금강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보 처리방안 의견 제출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적극 수용하고, 4대강조사평가단 원안 이상의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라'는 입장문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우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다음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국민과 주민들의 4대강 재자연화 뜻을 거스르고 보 해체 원안 합의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들은 대오각성 하고 원안대로 표결에 임하라. 환경부는 원안에 반기를 든 당연직 위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 3가지였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의외로 '세종보 상시개방' 내용이 담긴 것으로, 작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발표한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던 민간위원회의 결과와도 다른 내용이었다.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뤄져 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확정이 오는 10월로 예정되었고,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총리실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까지 수렴하여 보 처리방안 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 해체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초안이 수정되었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이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

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 초안의 속내는 지역개발기득권세력의 입길이 마치 여론인 양 길들여온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론살피기와 표몰이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이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가 모호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으로 선회된 것이었다. 이는 물관리기본법에서 관주도를 극복하고 민간영역의 활발한 논의 결과를 지원하고 실현시켜야 하는 행정기관들이 역할을 방임한데다가, 주요한 의제를 다루는 법정회의인 분과회의와 민간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정치인의 여론몰이에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었던 공주보는 세종보가 제시안과 반대로 기우는 듯 하자 덩달아 지역 건의사업을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부분해체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세종보 존치, 공주보 존치로 제시안과 상반되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정도로 회의장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초 정부 제시안대로 의결되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로서 해야할 한 당연한 결과였다. 다수의 민간위원들과 정부기관의 당연직 위원들에서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백제보 수문이 개방된 2020년 모습.

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음을,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고,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주목했고,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직시하고, 환경부가 일관된 정책방향을 가지고갈 수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공약을 지키는 일임을, 그 일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의식이 있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의 첫 단추를 꿰는 중대한 회의임을 자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콘크리트 고정보가 가로막은 금강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이 컸던 결과다. 게다가 정치세력이 요구하고 총리실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당초 정부 제시안에 더욱 근접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 처리 방안 기류변화를 감지한 다양한 언론 매체의 사실보도와 촛불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또한 일부 4대강사업을 찬동하고 깊숙이 관여한 일부 정부기관조차도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항명 형국으로 드러나는 행태를 바로잡은 결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철거 시기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단서조항들은 실망스럽다. 세종보 철거는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미 2년이 넘게 세종보 상시 개방을 통해 금강 자체가 재자연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오히려 선도사업은 세종보의 정략적 이용을 위해 급하게 만든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보 해체야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며, 보 해체 없이는 어떤 ‘선도사업’도 불가능하다. 공주보 또한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작년 2월 보 처리방안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가 바로 지역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였음을, 그에 따라 이미 보 인근 지역 주민, 수계 주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마친 것을 알고 있다. 백제보 상시개방 또한 최소한의 안에 불과하다. 3곳의 양수장과 175기의 관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농민’과 ‘물부족’을 볼모로 삼고 보 해체를 미룰 것인가. 물부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보 해체 이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의 상시개방만으로도, 금강은 되살아나고 스스로 재자연화를 시작하였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상시개방 후 경과’를 볼 것이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 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민의견수렴’을 반복할 것인가. 보 처리방안 제안 이후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물이용 대책을 꾸준히 마련했음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역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선명한 보 처리 방안 확정만이 남았다. 금강유역의 의견제출문을 받는 것만으로는 금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출문을 기본으로 삼아 보 해체를 전제한 보 처리방안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재자연화와 자연성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무작정 정치권의 눈치보기만을 두고 볼 수 없다. 보 해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할 준비는 끝났다. 조속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 결정과 공사방법, 재원 조달방법과 자연성 회복의 세부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은 선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강과 하천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보를 걷어내고, 강을 통해 모든 생명들이 온전하게 종횡을 오가면서, 바다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일부터 현실이 되어야 한다.

글 이시완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박사

‘극한 여행가’들을 위한 위대한 밥상

도요새 조사를 하는 조류과학자(유부도)

‘113’, ‘523,000’, ‘384,400’

위의 숫자는 문버드(Moonbird)라고 부른 ‘B95’라는 도요새와 관련된다. B95는 조류연구자가 새의 이동경로를 연구하기 위하여 왼발에 오렌지색 플라스틱 깃발(Flag)에 새긴 문자와 숫자이다. B95는 부리가 길고 건강한 수컷 붉은가슴도요(red knot:Calidris tenuirostris)이다. 그의 생애 중에는 조류과학자에게 4번 붙잡혀서 강제(?) 검사를 당하고 수많은 조류 시민과학자에게 목격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요새 중의 하나이다.

숫자로 기록된 B95는 몸무게 113그램, 평생 523,000㎞의 이동 거리, 지구와 달과의 거리 384,400㎞의 왕복 거리에서 조금 빠진 기록을 가진 철조(鐵鳥)였다. 이정표와 지형지물이 없는 바다에서 위도별 또는 지역별 다양한 바람을 이용하고, 주야간 첨단 천문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네비게이션인 이 새의 위대한 기록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

봄과 가을에 정확히 이동하는 도요새들은 자신들의 항로에서 급유를 받을 수 있는 허브 공항의 유무가 그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셈이다. 이들을 소재로 한 연구와 다큐멘터리는 도요새의 이동 비밀을 구체화하고 있다. 알래스카 유콘강에서 출발하던 수컷 큰뒷부리도요는 367g의 몸무게에서 지방만 201g이었다고 한다. 도요새는 장거리 이동을 위해 지방을 태워 그 에너지로 이동하는데, 출발 전 뱃속의 장기조차도 최소화해서 지방 축적을 하는 것이다. 장거리 여행자 도요새는 바다의 저서생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급유를 위해 잠시 머무는 허브 공항은 이들의 생명줄인 것이다.

극한 전략은 그 만큼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세기 인류의 목표는 바다를 메워 효율적

갯벌에 날아온 도요새 무리(흑꼬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 등)

극한 여행가인 도요새(붉은어깨도요)

극한 여행가인 도요새(큰뒷부리도요)

금강하구 유부도의 어민과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민물도요

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녹색혁명으로 인구가 늘고, 유휴 토지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산업화에 필요한 토지를 손쉽게 만들고, 국가 간 무역에 필요한 공항과 항만의 양적 팽창도 갯벌 매립의 명분이 되었다. 인구증가는 양식업과 수탈식 혼획 등 공유재 바다와 갯벌에 대한 인류의 간섭은 빈번하고 광범위했다. B95로 대표되는 붉은가슴도요도 북극행 기착지의(뉴저지 델라웨어 만) 먹이환경(도요새 먹이인 투구게의 인간에 의한 수확량 증가)이 바뀌면서 개체수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다행히 B95 여정에 대한 북미와 남미 시민과학자들의 관심으로 미국 정부는 붉은가슴도요의 먹이원인 투구게 수확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여 이 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호주와 동아시아를 잇는 새들의 'flyway'는 전 세계 9개 주요 이동 경로 중의 하나인 '동아시아-호주간 이동경로(EAAF: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이다. 매년 수십만 마리의 도요물떼새, 습지에 의존하는 새들이 동아시아 북쪽의 습지(시베리아 포함)에서 번식하며, 이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로 이동한다. 동아시아-호주간 이동경로에는 22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61종의 도요물떼새가 매년 25,000㎞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을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해안은 다양한 갯벌과 하구를 비롯한 습지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20세기 우리의 해양 정책은 매립과 산업화를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며, 그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1세기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새롭게 펼쳐질 때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안습지 갯벌이 극한 여행가인 도요새들을 위한 위대한 밥상으로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할 때이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2020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안모니터링 진행중"

울긋불긋 온세상 숲이 새옷을 갈아입고자 변신하던 10월 쾌청한 날에,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배병욱)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장모니터링에 동참하기 위해 모였다.

올해 5차례 현장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대전 동구의 인공습지탐사를 시작으로 대청호수변 데크길 관리현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지난 10월29일 네 번째 모니터링지점은 보은 회남면~회인면 일대. 대청호로 직접 유입되는 회인천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은 정책연구위원, 연구과제팀, 상근활동가 등 10여명은 첫 모니터링시 대청호 주변에 조성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였던 기억을 재차 경험하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회인천 인공습지 역시 다른 지역의 인공습지와 같이 수질개선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나 관리와 효과가 미비한 구간이었으며, 특히 하천옆 넓은 구간이 온통 새까맣게 불에 탄 흔적과 냄새가 남아있었다. 관리주체인 K-water대청댐지사의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송평1리 폐국도변에 방치된 많은 양의 축분현황을 확인하면서 행정당국의 관리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11월20일, 다섯번째 모니터링은 옥천의 금강~대청호구간으로 정해졌다. 마지막 모니터링은 정책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5대강협의회 활동가들과 연대를 도모하며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옥천의 금강~대청호구간을 탐사하면서 타지역 사례와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바람직한 수자원관리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도전!”

정화활동(마동리)

대청호유역하천센터에서는 매년 대청호 유역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대청호 유역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청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호 상류지역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하천정화활동, 환경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수질보전 활동, 환경실천활동을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매년 K-water 대청지사의 사업비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올해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청주시 문의면 마동리이다. 마을 선정과정은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일정기간동안 대상마을을 추천받는 과정을 거쳤다. 보은네트워크의 추천을 통해 보은읍 성족리가 선정되었고, 다른 지역네트워크의 추천이 없는 상황에서 운동본부 사무처의 추천으로 청주시 문의면 마동리가 선정되었다.

두 마을 모두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꽤 높은 마을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시작이 예년에 비해 늦어졌다. 이 사업 또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6월이 돼서야 시작되었다. 마을 이장 및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하였다.

첫 하천정화활동은 7월 30일 보은 성족리에서는 시작되었다. 아침 8시부터 3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마을하천인 성족천 및 마을 곳곳을 청소하였다. 성족리에서는 이후 9월 23일에도 2차 정화활동이 추진되었다. 마을 주민들 중 남자분들은 성족천으로 내려가서 하천정화활동을 하였고 여자분들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였다.

청주 마동리에서는 9월 5일에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마동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모여 하천정화활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 곳곳 쓰레기 수거 등을 진행하였다.

주민환경교육은 주민들과 환경에 대해 공부도 하고 천연비누 및 천연세제 등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민환경교육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내에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곳이나 경작해서는 안 되는 곳에 무단으로 경작이 되는 곳을 정리하고 나무나 꽃 등을 심는 사업이다. 보은 성족리의 경우 마을 버스정류장 등에 쓰레기가 자주 투기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화분을 배치하여 화단으로 조정하였고, 청주 마동리는 무단 경작이 되기도 하고 폐비닐 등이 종종 투기되는 곳을 정리하여 꽃나무 등을 심어 작은 공원으로 만들었다. 두 마을 모두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로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들이 좋아했고 의미가 있었다.

투기구역 정비(위: 마동리, 아래: 성족리)

정화활동(성족리)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과 마을 내의 하천을 깨끗이 가꿔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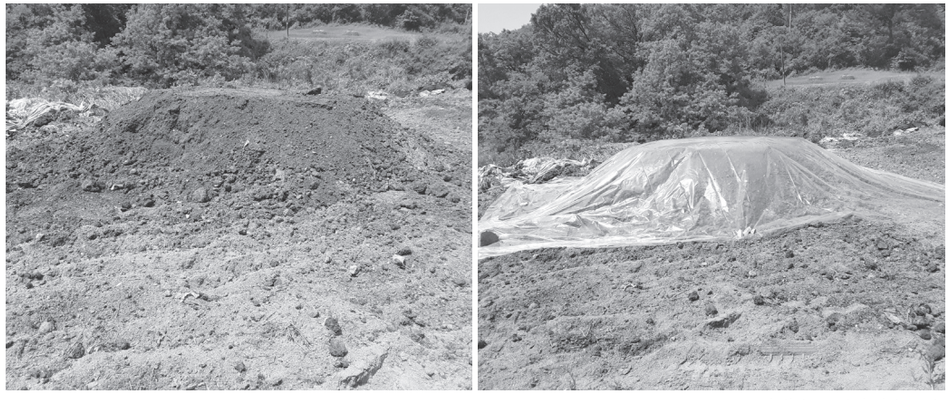
글 이강혁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국장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 꼭 필요합니다!

대청호유역하천센터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곳곳에 적치되어 있는 가축분뇨에 대한 조사 및 홍보물 배포, 홍보현판 설치, 방치된 축분 비닐 덮기 등을 진행하였다.

가축분뇨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맑은 하천과 호소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축분 등에 비닐을 덮어서 중장기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줄이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대청호유역하천센터의 하천감시단,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의 환경리더와 모니터링단,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강환경지킴이 등과 협력하며 진행하였다.



(좌)축분 전, (우)축분 후

먼저 방치된 축분에 비닐 덮기를 진행하였다. 비닐 덮기는 한 곳에 오래 방치된 가축분뇨,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여러 경작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축분뇨 등에 진행하였다. 경작지에 쌓여 있는 밭갈이 예정인 가축분뇨에는 비닐을 덮지 않고 비가 오기 전에 빠르게 밭갈이 해 줄 것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가축분뇨 적정관리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현판을 가축분뇨가 적치된 곳에 설치하여 홍보하였다. 홍보현판을 설치하고 나서 추후 다시 확인한 결과 축분주가 홍보현판을 보고 스스로 비닐을 덮은 경우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11월 중순 현재까지 홍보사례 25건, 비닐 덮기 35건을 진행하였다.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성과적인 활동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축분뇨가 많이 적치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농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가축분뇨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 적치도 많았고 또한 벼 추수 후 배추 등을 심는 10월에서 11월 초까지 가축분뇨 적치가 많았다. 대부분 경작을 위해 축분 적치 후 얼마 후에 밭갈이를 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종종 발견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가축분뇨가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더 많이 노력했으면 한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대청호 상하류 미래세대 교류행사 성료

안전한 수돗물, 플라스틱 줄이기운동에 동참

“저 거대한 녹색 물그릇 대청호수가 수돗물이 되어 우리가정에서, 우리학교에서 콸콸 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난 11월14일, 붉은 가을빛이 눈부신 날, 10시부터 초중고 70여명의 미래세대들이 대청댐 광장을 떠들썩하게 채웠다. 코로나19로 걱정반 기대반, 설렘을 안고 대청호 상하류 지역의 학생들이 뭉친 것.

금강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주며 건강한 마을살이를 하는 상류아이들(옥천 안남배바우도서관) 35명과 대청호가 수돗물이 되어 활용되는 원수임을 잘 몰랐던 대청호 하류지역 미래세대(대전제일고등학교 물사랑지킴이단)들 36명 등 총 71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청호를 중심으로 교류활동에 나섰다.

우리지역 물줄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깨끗하게 흐르는 금강이 대청호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서해바다로 흐르는 물줄기를 상상하며, 각 영역에서 상생을 위해 작은 실천활동이 무엇인지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더불어 대청호가 수돗물이 되기까지 과정을 알고 수돗물의 안전성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는 가운데 플라스틱병물과 수돗물 시음회를 통해 수돗물이 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지, 생활속에서 무심코 플라스틱을 대량 발생시키는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친환경적 삶을 위한 실천활동을 해보기로 약속하는 교류행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 쓰레기, 녹조, 독성물질,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노란티셔츠의 덩치큰 고교생의 고백이 많은 참가자들에게 11월 눈부신 빛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올해 미래세대 물환경 공동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가운데 우리단체가 상하류 미래세대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돗물교육을 포함한 대청호물환경교육을 50회가량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물환경교육 영상을 시범제작하여 희망학교에 배포하는 등 온라인교육도 가능해졌다.

글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국장

운영위원회 통해 올해 활동 마무리 계획 및 평가

대청호 직유입하천 중심 소유역 거버넌스 방향 설정 기대

서화천 유역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거버넌스 연구 네 번째 운영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대청호유역하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관·학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진행됐던 거버넌스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도랑살리기 마을사례 구축을 위해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생활하수오염도 저감을 위한 작은 둠벙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하면서 주민관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는 총 18호에 21명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마을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을의 생활하수가 여과장치 없이 대청호로 직유입되고 있어 마을회관 앞 잔디광장 중앙부에 둠벙(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둠벙은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해 자연형 저감시설로 만들어졌다. 현재 둠벙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 10월 22일에는 마을주민과 함께 도랑살리기 마을공동체 운영 협약식을 진행하여 환경교육을 하고 둠벙 조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들은 스스로 관리자가 되어 역할 분담을 잘 하여 둠벙을 관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화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운영위원회

(좌)막지리 생활하수 오염도 저감 위한 둠벙조성중, (우)서화천에 흘러드는 사양리 마을도랑변 정화활동

주민들의 관리의지는 높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관리가 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더불어 11월 17일 진행예정인 '금구천 생활하수관리현황 및 수질개선방안마련 위한 토론회'에서 운영위원 역할분담 및 토론위원 구성이 통과되었고, 11월 25일 진행예정인 거버넌스 연구 최종보고회 자문위원단도 구성되었다. 또한 외부자문위원으로 연구과정에 참여한 실천마을대표자 11인이 추천되어 섭외하기로 결정됐다.

금구천 생활하수관리현황 및 수질개선방안마련 위한 토론회는 옥천읍내를 관통하는 금구천에 있는 우수토실의 오염도가 높아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우수토실이란 빗물과 오수가 합쳐지는 합류식 하수관에서 빗물의 일부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옥천군 하수관리를 책임지는 행정기관, 연구기관,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하수관리 실태 및 관리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을 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세부계획을 결정하였다.

한해의 연구를 마감하고 내외부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소유역 수질개선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옥천 안남면 인구 1,440명 대청호 상류지역 마을소멸 현실화 되나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과 영동지역마을 소멸현상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5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농촌지역 초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대청호 상류지역규제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청호 상류지역인 옥천과 영동마을 해당지역은 7-9개의 규제에 묶여 있다.

특히 환경당국은 대청호수질오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강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1-2 권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했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면적의 83.8%가 대청 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02년 전체면적의 24% 정도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청 댐 건립이후 30여 년간 규제로 옥천과 영동지역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가 크다. 이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옥천군의 인구는 5만 1,023명으로 2015년 5만 2,404명보다 1,381명이 줄었다. 9개 읍면중 금강상류에 위치한 면단위 인구감소 현상 두드러졌다. 안남면 인구는 1,500명이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1,440명을 유지했다.

또 2,000명 이상을 유지해 온 안내면은 지난해말 기준 1,964명으로 인구가 줄었다. 이는 2015년 2,109명보다 14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말 기준 동이면은 3,240명, 청성면 2,356명, 군서면 2,307명 등으로 집계됐다. 금강상류인 영동군의 양산면과 심천면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옥천과 영동지역 해당마을주민들은 대청호 건립 후 중부권 500만 명 상수원으로서 보호해야 할 당위성과 지역의 책임만 강조하고 상류지역의 쇠퇴와 삶의 질 저해 등의 문제해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옥천 군 관계자는 "대청 댐 건립이전 경부선철도의 한 축이었던 옥천과 영동은 인근지역인 대전과 함께 번창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되기도 했다. 대청댐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주민에게 불만대상이 되고있다"며 "정부가 대청호상류의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친환경발전사업추진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연구원박사 한 관계자는 "청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부권 지자체는 농촌고령화로 노인인구비중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지방소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20. 10. 05 육중천 기자

대청호 골칫거리 녹조가 퇴비로?…재활용 길 열리나

대청호 녹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시도가 실현될 경우 대청호 모든 수역에 경보령이 내려질 만큼 골칫거리 녹조를 대량 제거하는 동시에 자원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는 현재 총 6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청호 녹조회수 및 정화 테스트베드를 수행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를 말한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으로 녹조회수 및 정화에 나서면서, 공사와 협의를 거쳐 기술을 보완하며 대청호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씨엠스코의 수중용 녹조회수설비의 경우 단 1대로 하루 1톤에 달하는 녹조 회수가 가능하다. 대량 수거에 따른 자원활용 가능성에 한껏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해당 설비는 하루 최대 12ha 내외의 녹조를 회수하면서, 시간당 70%가량 정화된 강물을 약 20톤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녹조는 컨소시엄을 맺은 충남 서천군 소재 한 불가사리 액비업체로 전달된다. 현재 액비와 녹조를 혼합한 퇴비가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부터 하우스작물에 직접 실험 적용할 계획이다.

녹조회수는 앞서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대량 회수가 어려워 재활용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탓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대량 수거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는 분위기다. 해당 설비는 오는 11월 테스트베드를 마치면 수정 보완을 거쳐 보급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제거 및 정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계속하면서, 효율적인 기술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많은 업체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면서 수역 정상화를 위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 테스트베드를 넘어 성과 공유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2020. 10. 17 김종서 기자

대전 동구, '마산누리길 조성사업' 국비 9억 원 확보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마산누리길 조성사업' 선정으로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산누리길 조성사업'은 마산동 주민쉼터(산45-6번지)'부터 '마산 소한터(262번지)'에 이르는 1.1km 구간에 데크 및 야자매트를 설치해 누리길을 조성하고 전망대 2개소와 방문객들의 주차가 가능한 한터(넓은 빈자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청조정지 댐 건설 이후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통행이 불가한 대청호 오백리길 4구간(호반낭만길) 일부구간에 수변데크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해 탐방객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됐다.

사업 완료 시 슬픈연가 촬영지가 있는 명상정원부터 미륵원지를 지나 관동묘려에 이르는 5km의 산책로 코스가 조성돼 대청호 수위 상승 시에도 산책이 가능하며 연중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9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유왕상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마산누리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대청호수의 유명 맛집과 시 지정 문화재가 위치한 마산동 일원까지 대청호 오백리길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관광객들에겐 여가공간이 제공되고 주변 식당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디트news24】 2020. 10. 20 양성모 기자

"낚시 쓰레기 못 참아" 옥천군, 대청호 3곳 '금지구역' 설정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낚시꾼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 교통 체증, 수질 오염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 두해 전 일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낚시 포인트로 알려진 곳이면 어디든 먹다 남긴 음식물부터 페트병, 빈 소주병, 비닐봉지, 부탄가스통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변 도로는 낚시꾼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낚시 과정에서 뿌려진 밑밥과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산다.

꾸준한 계도에도 이 같은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자 행정당국이 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은 대청호 3곳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호수 생태계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낚시가 가능한데, 통제구역 설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제 예정 구역은 동이면 옛 취수탑~남곡리, 안내면 현리~신촌리, 군북면 이지당~서화천 측정소 구간이다.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112만3천676㎡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올해 3~5월 대청호 주변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있다는 민원이 30~40건 접수됐다"며 "낚시를 즐긴 후 스스로 쓰레기를 가져가는 시민의식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이 올해 4~5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가 낚시 통제구역 설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이면 안터마을에 사는 박효서 전 이장은 "낚시꾼들이 쓰레기가 안 보이게 풀 속에 버리거나 돌 틈에 끼워놓기도 하고 심지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마을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거리낌 없이 버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자치단체장이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내년 3개 구역을 중심으로 낚시꾼을 통제한 후 주민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 10. 21 심규석 기자

대청호 회남수역, 조류경보 '관심' 단계 80일만에 해제

지난 8월6일 대청호 회남수역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약 80일만에 해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8일 회남수역 조류경보를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청호 회남수역의 유해남조류는 지난 12일 2828 cells/mL에서 19일 212로 감소했으며, 26일은 유해남조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류경보가 발령 중인 문의·추동수역의 유해남조류도 '관심' 단계 기준(1000 cells/mL)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

대청호 유해남조류 감소는 수온 저하, 물꼬리 부분 조류집중제거 활동, 주변 오염배출원 점검 등 관계기관의 녹조대응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청이 현재까지 대청호를 원수로 이용하는 인근 취·정수장에 대해 조류로 인한 영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류독소는 미검출, 맛·냄새 영향물질은 모두 기준치(0.02㎍/L)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

금강청 관계자는 "유해남조류가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나, 아직 조류경보가 전면 해제되지 않은 만큼 녹조현상 대응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1】 2020. 10. 28 김종서 기자

달빛 별빛이 밝혀주는 대청호 야경 체험

대전시 대덕구는 올해 12월 말까지 대청호와 계족산을 트레킹하는 '공정·생태관광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분야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된 소수 인원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안전한 공정·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주제는 보행(트레킹)과 자전거, 기차를 통한 '탄소배출 줄이는 보자기 여행'으로, '달빛 품은 계족산 낭만산책'과 '대청호 여유산책'을 진행한다.

'달빛 품은 계족산 낭만산책'은 2019년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돼 2020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주간에는 대청호 오백리길, 야간에는 계족산 황톳길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청호 여유산책'은 대청호로하스캠핑장에서 집결해 지명산을 둘러보고, 대청호 노을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과 모닥불 체험, 달빛과 별빛이 밝혀주는 야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여행문화학교 산책의 홈페이지(www.gowalk.kr)의 '공지사항'에서 가능하며, 참여 인원은 1회에 10명 정도로 제한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전한 공정·생태관광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해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2020. 11. 17 이한영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K-water

수자원공사, 창립 53주년 '기후위기 경영' 선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전력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참여 계획(사진)을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11월 16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중심의 물관리 혁신'을 다짐하는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경영'을 선언하며 "정부의 탄소 중립 발표와 연계해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공공기관 최초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 같은 청정 물에너지 보급 확대로 국내 기업들이 조속히 RE100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미래 도전으로 치열한 물관리 플랫폼 경쟁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할 것"이라며 "물 재해로부터의 국민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극복을 위한 물값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박 사장은 "공사 창립 53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경영 선언을 넘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경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물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의 녹색전환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활성화 협약 체결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0월 30일 오전 10시 대덕구청에서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에는 대덕구,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미호동복지위원회, 신성이앤에스(주)가 참여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사업을 민-관-기업-주민이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는지 모니터하고 평가하며, 대덕구는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시행한다. 미호동복지위원회는 운영주체로서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전환해유는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 자원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신성이앤에스(주)는 기능 및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을 지원한다.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미호동이 생태마을로 조성되는데 넷제로 공판장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생태마을, 에너지전환마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사업은 행정과, 단체, 기업, 주민이 함께 해서 의미가 크다."며 "대덕구가 대덕구형 그린뉴딜과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선도 미호동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미호동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함께 미호동을 특화된 마을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미호동 상수원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으며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주민에너지 전환 교육, 생태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신성이앤에스(주) 대표는 "넷제로 공판장과 같은 에너지전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넘어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다.

이들 협약 기관들은 이후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이 생태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 주민 자원 조사 ▲ 넷제로 공판장 주민 학교 ▲ 넷제로 공판장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YMCA

대전YMCA,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대전YMCA(이사장 조광휘)는 10월 28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에서 '윤리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라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하여 대전지역 경제를 살리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원용숙 시민참여연구센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소비자의 역할은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안경자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현대 사회는 윤리적소비 등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숙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표적인 윤리적소비가 '로컬푸드'이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에 소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도 "윤리적 소비를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함 감수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제도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YMCA 조광휘 이사장은 "대전광역시의 후원으로 열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윤리적 소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네트워크

시민단체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는 11월 16일 환경부 앞에서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사)풀꿈환경재단, 음성환경지킴위원회 등은 환경부 앞에서 음성LNG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가 배출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을 밝히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다"고 주장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사회봉사단 협약체결

충남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11월 11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사회봉사단(단장 김기홍)과 교류협력 협약을 최근 체결하고 녹색캠퍼스 만들기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와 교류 사업,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 자원순환 대학캠퍼스 만들기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유혜정 사무국장은 "다수의 대학이 밀집해있는 천안의 특성을 시민사회운동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이다"며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대학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사회 협력자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단국대를 중심으로 대학가 원룸촌 쓰레기 분리배출 현황 모니터링, 대학가 카페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진행한바 있다.

무주군

"농약빈병·폐비닐 수거" 무주군, 농촌정화활동 앞장

전북 무주군이 수질·토양오염의 주범인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수거하는 등 농촌 정화활동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농촌지도자들은 10월 26일 적상면 일대에서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된 농약 빈병의 수거와 분리작업 등 농촌 정화활동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가을철 및 내년 영농기를 앞두고 농가들이 사용 후 무단으로 버리거나 방치한 비료 포장지와 농약 빈병을 수거했다.

수거한 폐기물은 적상면의 폐기물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가졌다. 이와 관련, 올해 농촌지도자들은 지난 6월, 7월에도 농촌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수거한 폐비닐 등을 매각해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의 자체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약빈병 등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농산물 생육저해, 미관훼손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20여명의 농촌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줌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산군

금산군, 금산천 꽃경관 조성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10월 22일 금산읍 아인리~중도리 일원 후곤천길 조성사업장, 백김이~음지리 일원 꽃경관 사업장 및 추부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실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장과 담당자들이 함께했다.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은 금산읍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인삼축제 행사장, 버스터미널, 인삼국제시장, 금산인삼관, 전통시장까지 도보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로를 마련하며 올해 전체구간(1.0km)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금산천 꽃경관은 하천둔치를 활용해 계절꽃단지 8ha를 만들어 봄의 유채꽃과 가을의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한다.

백김이, 금천대교 1ha구간에 주민 휴식을 위한 포인트 경관을 연출하고 금산천~후곤천 7km 구간 데크 산책로에 사피니아 꽃길도 조성했다.

앞으로는 꽃단지, 포토존, 휴식공간 등 볼거리를 만들고 내년 봉황천 가을꽃축제 추진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산천 꽃경관은 금산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 조성용 꽃(국화, 사피니아 등)을 육묘하고 민간단체들이 꽃경관을 조성하는 민관협력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개인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주거환경개선 및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부면, 군북면, 남일면 등 3개소 일원에 오수관로 16km, 배수설비 417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준공한 후 유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4계절 관광객이 찾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명품 후곤천길과 금산천 꽃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행정의 고품질화를 실현하기 위해 밀도있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 / 무주 4-H본부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 4-H본부,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반딧불산나물친환경영농조합법인,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 / 사단법인 정심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사)정심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 / 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산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보은네트워크

사무국 /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종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 /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시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 /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팔백리,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시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천안시

■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